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2.8~2017.2.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4	붓다아비담마(체계적으로배우는)	멤틴몬/김종수	불광출판사
5	혜민스님의따뜻한응원(365일마음달력)	혜민	수오서재
6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7	안되겠다내마음좀들여다봐야겠다	용수	나무를심는사람들
8	뇌인과	최병대	라이터즈
9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10	천태지관-천태지관의체계적이해(불교수행법3)	최기표	도피안사



"큰스님, 왜 행복을 좇을수록 괴로워질까요?"

큰 스님의 마음공부

보광 대선사 말씀 | 경성 · 각산 스님 엮음

21세기북스 펴냄 | 1만 6천원



이 책은 20년간 해인사 작은 암자서 은둔 수행한 이 시대의 진정한 수행승이자 불교계 대석학인 보광 대선사의 설법 모음집이다. 신기루 같은 풍요를 좇으며 복잡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대선사에게 물었다. "큰스님, 왜 행복을 추구할수록 번뇌에 휩싸일까요?" 불교계의 걸출한 지도자들을 배출하면서도 어느 자리 하나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불법을 수행하며, 산속서 정진한 보광 대선사는 번득이는 섬광 같은 통찰과 구수한 시골 할아버지의 입담으로 그동안 깨달은 팔만대장경 속 불법 이야기를 전한다. 이 책은 신해행증, 마음공부의 네 계단을 오르며 '나'를 찾아 나서는 영적 지침서이다

세계적 자랑인 성보 팔만대장경이 보존된 가야산 해인사 보광 대선사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 성철 스님이 열반한 1993년 이후 그 뒤를 이어 가야산 호랑이로서 옹골차게 팔만대장경의 뜻을 지키는 수행승이다. 스님들은 보광 대선사를 두고 해인사의 마지막 큰 어른이라 입을 모은다. 보광 스님은 평생 동안 전 세계서 찾아오는 많은 이에게 불법의 깨달음을 전수한 것은 물론 현재 한국 불교계를 이끄는 걸출한 지도자들을 가르친 대석학임에도 , 서로 하려드는 큰절의 주지나 방장, 조계종 원로의원 등과 같은 모든 공직을 떠나 지난 20년간 해인사 산중 암자 희랑대서 은둔 수행 중이다. 팔만대장경 속 불법을 수행하며 올해 세수 77세, 법랍 60년을 맞은 보광 대선사가 조곤조곤 사람들에게 들려준 불법 이야기를 제자인 경성 스님(해인사 희랑대 주지)과 각산 스님(참불선원장)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은 큰스님이 평생에 걸쳐 산중서 깨친 불법의 고귀한 진리,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은 깨달음의 정수 자체다.

책을 엮은 경성 스님은 "보광 대선사는 참선, 교학, 율학을 두루 갖춘 대선사입니다.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가며 감히 범접치 못할 경지의 언행일치를 이루셨으며, 삶의 문제와 인생의 애환을 번득이는 섬광같이 예리하게 통찰한 지혜의 말씀을 전해왔다"며 "그 주옥같은 감로법문을 한 권의 책으로 모으니, 이 책에 담긴 말씀은 우리 중생의 삶을 바로 지금 이 자리서 성공적으로 변화시켜줄 법문"이라고 평했다.

여느 법문집보다 더 조곤조곤하게 불법을 이야기로 풀어주시는 보광 대선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나'를 바로 보게 해준다. 마음이 병드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내 바깥에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구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광 대선사는 신기루 같은 허상을 좇다가 진정 원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가끔은 따끔하게 죽비를 드시고, 또 가끔은 등을 쓰담쓰담 어루만져준다.

책 속에서 보광 대선사는 "사슴 한 마리가 마실 물을 찾아서 이 언덕 저 언덕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들판 저 먼 곳에 큰 물웅덩이가 보였습니다. 사슴은 기쁜 마음에 한숨에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들판에는 물 한 모금도 없었고 다시 저 언덕 너머로 물웅덩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슴은 지친 몸을 끌고 또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물은 없었습니다. 과연 물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물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지의 열기로 뜨거워진 공기에 햇빛이 반사된 신기루였던 것이지요. 우리 삶도 목마른 사슴과 그리 다를 것이 없습니다."고 당부한다.

사막의 사슴 같은 신세의 사람들은 하늘서 뚝 떨어질 진리를 찾지만, 보광 대선사는 말한다.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한 사람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누군가의 말과 법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진리에도 행복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대선사의 말씀은 일반 지혜와 다르지 않으면서도 다른 깊이와 무게가 있다. 그것이 산중서 오랜 수행 끝에 '산방한담' 이야기로 사람들을 깨치는 대선사만의 비법인 것은 아닐까?

'정해진 진리란 없다는 것만이 진정한 진리'라 강조한 이 책은, 그러나 불교의 신(信)-해(解)-행(行)-증(證)의 정해진 수행 과정을 따라 총 4부로 구성했다. 이해와 믿음으로부터 수행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불교 수행 과정은 선교겸수, 선경율 삼장, 유불선을 통달한 보광 대선사야말로 진정 안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마음수행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대선사의 말씀이 있기에 마음 수행의 네 계단을 디디고 올라서는 여정이 외롭고 어렵지만 않다. 대선사 말씀과 더불어 속세의 복에 만족치 말고 더 높은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마음공부의 첫걸음을 바로 지금 시작해보자. **김주일 기자**

책속의 밑줄 긋기

▲"세상살이가 힘겹고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 원망을 해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괴로움의 원인도, 또 괴로움의 결과도 결국 자신의 견해와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세상만사가 복잡다단하고 번뇌망상이 온 천지를 뒤덮으며 짓누르더라도 결국은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나의 '생각 하나'를 벗어나서는 번뇌도 해탈도 무명도 보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손자 하나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가 너무도 가난해서 굶어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운 좋게도 떡 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손자에게 먹이고 손자가 배불러 하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숨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묶었나요?…아무도 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너를 묶지 않았다

월호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 1만 4천원



진짜 행복이란 무엇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행복 멘토인 월호 스님 〈사진〉의 말이다. 스님은 불교방송 라디오를 10년간 진행한 인기 DJ다.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대중에게도 친숙하다. 스님의 군더더기 없는 강의는 인생사 고민에 명쾌한 답을 주기로 정평이 나 있다. 스님이 하신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끌어줄 이야기를 엄선해 한 권으로 묶었다.

이 책은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 마음속 고민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발견한 이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았다. 자존감이 낮아 고민하는 사람부터 가슴속에 가득 찬 분노로 힘겨워하는 직장인까지. 각 사례는 결국 나와 이웃의 이야기이며, 스님의 답변은 우리 모두를 위한 조언이다. 불교에 대해 잘 몰라도 경전에 실린 이야기와 스님의 경험담을 통해 인생의 반짝이는 진리를 만날 수 있다. 이 책과 함께라면 스스로 묶어놓은 마음이 툭 열리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말하며 조건을 붙인다.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자동차, 아이들 교육비가 마련돼야 행복해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일에 치이고, 과도한 경쟁에 고통받고, 시간에 쫓기며 살다 보니 어느새 행복해지는 법을 잊고 말았다. 사실 진짜 행복이란, 무엇도 하지 않고 당장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행복 멘토인 월호 스님의 말이다.

월호 스님은 평일에는 라디오 DJ로 청취자들과 만나고 일주일의 절반은 서울, 나머지는 이천의 수행공간서 강의하고 수행을 지도한다. 스님은 삶의 깨달음을 대중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전달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인생사 고민에 대해 적절한 비유를 들어 명쾌한 답변을 주기로 정평이 나 있다. 예컨대 행복에 대해 강의할 때 행복의 본질을 달에 비유한다.



> **"우리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 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미래 목표가 아닌 현재의 선택이죠"**

"달은 항상 보름달입니다. 우리 눈에 초승달, 반달로 보인다고 해도 달 자체가 이지러지거나 반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달처럼 날마다 밝고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의 행복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스님이 출간한 책들이 불교 경전의 강설, 참선, 웰다잉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책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 누군가 정해놓은 삶의 틀 안에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식과 돈을 쌓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움켜쥐고 삶이 버겁다 말한다. 우리는 본래 자유롭고 어디에도 매인 적이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물질과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고 스님은 말한다.

이 책에는 고민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의 사례가 풍부하게 실려 있다. 자존감이 낮아 고민하는 사람, 가슴속에 가득 찬 분노로 힘겨워하는 직장인, 부모님 때문에 일을 관두지 못하는 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까지. 각각의 사례는 나와 이웃의 이야기이며, 스님의 답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조언이다. 또한 불교에 대해 잘 몰라도 경전에 실린 이야기와 스님의 경험담을 통해 인생의 반짝이는 진리를 만날 수 있다.

예컨대 숲속 비구의 일화를 통해 〈자애경〉을 배우고, 비틀스 음악을 통해 〈법구경〉을 이해하며, 말리카 왕비의 이야기를 통해 〈잡아함경〉에 담긴 지혜를 깨닫게 된다. 스님은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울 수 있기에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욕심과 분노를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무작정 극복하려 하지 말라고 한다. 욕심 대상을 나로부터 모든 이로 넓히면 큰마음으로 바뀐다. 분노의 대상을 나에게로 향하면 내 허물을 볼 수 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다. 붙들거나 건드리면 스트레스가 더 커질 뿐이다. 감정의 상태를 지켜보면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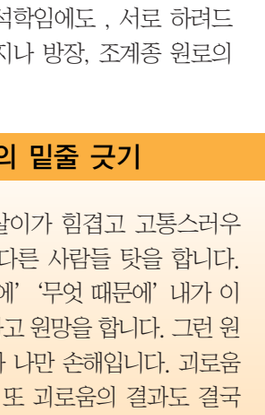
이 책은 총 다섯 파트로 나뉜다. 1장은 트라우마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2장은 행복을 두 배로 키우는 마음 습관을 가르쳐준다. 3장은 내 인생을 후회가 아닌 충만함으로 채우는 법을 소개하고, 4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의 수행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알려주며, 5장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길을 안내한다.

여기에 더해 책 곳곳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짧은 글 40편과 작가 필몽의 수묵 일러스트를 만나볼 수 있다. 오늘이 힘겹고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 마음속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 삶의 통찰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책과 함께 삶의 진리를 향해 가다 보면 스스로 묶어놓은 마음이 툭 열리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월호 스님은?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서 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학도에서 불교도로 전향한 데에는 젊은 시절 갑작스레 경험한 지인들의 잇따른 죽음의 영향이 컸다.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과 허망함 속에서 방황하다 '선(禪)'을 통해 생사 문제를 바라보게 됐다. 선학을 공부하며 '선'을 이론적으로 확립했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 쌍계사로 출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쌍계사, 봉암사, 해인사 등 여러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고산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다.

최상승 방편의 비밀신주!
원하는 바를 즉각 얻을 수 있게 하는 진언, 진언 중의 근본진언!



수구즉득대다라니
隨求卽得大陀羅尼

"나(부처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을 널리 설하여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이 진언이 가장 최상이며 제일이니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본문에서)

우리말 번역과 함께, 가피의 효험, 사서 방법, 기도법 등을 덧붙여 누구라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공금강 한역漢譯/석법성 역주/국판/160쪽/ 9,000원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일깨우는 맑은 소리!

개에게 우유를 먹이는 방법

17년 동안 쌓인 지하철 〈풍경소리〉의 에센스!

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삶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맑은 여운을 남기는 100편의 이야기!

고암 정병례 선생의 전각그림과 박준수 화가의 동양화가 어우러져 깊이를 더해준다.

글 풍경소리/전각 정고암/그림 박준수/국판/216쪽/13,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